

장학금에 의료비 지원 등 '나눔 실천인'

조건국 원장 '대한민국 나눔대상' 대통령 표창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조건국 원장(71·조건국내과의원·사진)이 '2015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15일 오후 3시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나눔 국민대상'은 나눔 실천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실천 사례 홍보 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지역에서 '나눔 실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 원장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광주지회장을 역임하고, 착한 병원 캠페인을 펼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통 받는 소외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장학금 1억원 출연, 광주 60년사 편찬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광고인 영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4년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과 무등산 공유화 운동에 사유 토지 기증, 범죄 피해자 의료 자문 및 무료진료 등 나눔을 지속해 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7개 합창단 참가 광주초등연합합창제 열려

장성 진원초 '물방울 중창단' 우정 출연

광주초등음악 연구회(회장 김미환)가 15일 '제36회 광주초등연합 합창제'를 개최한다.



합창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광주시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광주 계림·광주교대부설·문화·봉산·산월·산정·신창 등 광주지역 초등학교 합창단 7개팀이 참가한다. 지난달 '제5회 전국 과학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장성 진원초 '물방울 중창단'이 우정출연해 특별공연도 펼친다.

광주초등연합 합창제는 광주지역 초교 합창·합주부 학생들이 경연하는 무대로, 34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5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열리고 있다.

광주초등음악연구회 회장인 봉산초 김미환 교장은 "광주 153개의 초등학교 중 합창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10개도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연합합창제가 학교에 더 많은 합창·합주부가 창단되는 디딤돌이 돼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송원초, 日 교사 초청 '수업기술 교류회'



광주 송원초(교장 신명순)는 지난 13일 일본 쓰쿠바대학 부속 소학교 교사 3명을 초청해 '제8회 한일 양교 수업기술 교류회' 행사를 열었다.

(송원초 제공)

“음식은 문화 ... 한식 세계화 좋지만 음식 애국주의 경계해야”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한식의 세계화'

“여러분은 한식의 세계화에 동의 하시나요?”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이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선 황교익(53) 맛칼럼니스트는 '한식의 세계화와 음식 애국주의'란 주제로 열었다.

황씨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중들에게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 반대하는지 물어봤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대답하자 이 말은 깊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먼저 '음식은 문화'라고 정의를 내렸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살펴보면 출신지, 가족관계, 가정환경, 성격, 학력, 경력 등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한 가족이 좋아할 수 있고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선호하는 음식일 수 있으며, 계속 넓혀 가다 보면 한국 음식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습관 및 예절 등 문화가 창출된다는 분석이다.

“사람들은 흔히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외가 쪽 사람들이 음식 성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전에는 씨족마을이 많은 관계로 집집마다 음식이 비슷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골에 내려가 보면 시장이 열리는 날 각 마을 사람들이 음식 정보를 공유하게 되요. 따라서 음식문화를 지역별로 나눌 때도 보통 생활 공유 지역인 군 단위로 나누죠.”

황씨는 “최근 궁중음식을 만드는 분이 우

호하는 음식 살펴보면 출신지·성격 등 알 수 있어

조선시대는 남자가 음식 만들어

대장곰서 시작된 한식 세계화 오류

리 음식은 점점 잊혀져가는 반면 빠디귀해장국, 부대찌개 등 국적불명의 경박한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대신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개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곧 문화인데 빠디귀 해장국을 좋아하는 사람을 국적 불명의 경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매우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흔히 전통 한국음식으로 꼽는 신선로, 구절판 등을 예로 들며 신선로와 비슷한 음식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추는 한국에 들어온 지 500년밖에 안됐다. 배추와 양파는 1800년대 들어왔고 지금은 파프리카를 많이 쓰고 있다”며 “음식 재료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재료로 한국 전통을 구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통 한국 전통음식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다. 현대인들은 상상 가능한 시점을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흔히 조선시대를 꼽는다.

황씨는 “드라마 '대장금'에서 조선시대 왕이 먹는 음식을 여자가 만든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한 유교국가인 조선은 남성이 음식을 만들었다. 따라서 대장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지난 13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으로부터 시작된 한식 세계화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것으로 알고 있는 '한정식'은 원래 기생들이 머물던 술집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선이 망한 후 일제강점기를 잃은 궁중 요리사들이 술집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이후 1960년 한국에 료살롱이 생기며 기생집이 급속도로 쇠퇴하자 요리집으로 전환한 게 지금의 한정식집이라고 알려졌다. '불고기'라는 명칭도 1930년대 한글학자 김윤경 선생이 일부어 '야끼니구(焼肉)'를 직역한 말이라고 한다.

이렇듯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뉴욕타임즈' 등에 김치 홍보 광고를 내며 한식의

세계화, 음식을 통한 애국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식이 곧 문화'인데 정부가 음식에 대해 민족 관념을 집어넣어 세계에 홍보하는 일 자체가 비문화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황씨는 “전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멈추는 순간 죽음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음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식품 판매를 위해 민족애를 호소하는 행위는 문화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파소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12년간 농민신문사에서 근무한 후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tvN '수요미식회', SBS 라디오 '황교익, 강현의 맛있는 라디오' 등에 출연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고인 한마당... 김장환·문순태·송영수 '자랑스런 광고인'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반재경 거명산업 회장·사진)는 18일 모교에서 광고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전남교육감 김장환(5회), 소설가 문순태(9회), 서강기회회장 및 전국민주평통협의회



부회장 송영수(15회) 등이 '자랑스런 광고인'으로 선정돼 수상한다.

총동문회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반재경 회장은 "광고인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동문들의 열정과 업적이 계승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동문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상규 조달청장이 13일 담양군청에서 최형식 담양군수와 '담양군 생태·인문기행'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죽녹원·소쇄원으로 생태·인문기행 오세요”

담양군-조달청 여행상품 개발 협약

조달청(청장 김상규·사진 오른쪽)이 담양군(군수 최형식)과 '담양군 생태·인문기행'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개발될 생태·인문기행 여행상품은 정부기관인 조달청과 지자체인 담양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발한 지역여행상품으로,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소쇄원, 창평 슬로시티 등 생태·인문자원 중심의 길 6개로 구성됐다.

현재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담양군의 생태·인문기행은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주제형 여행상품'이다.

또 해설사가 동반해 교육적 효과가 높고, 지자체와 직접계약으로 안전·신뢰성, 경제성을 확보했다. 학생과 함께 정부·공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폭을 넓혔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로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출신 소설가 박화성 선생 기리는 페스티벌 도서 열린다

목포출신 소설가 소영 박화성(1903~1988·사진) 선생을 기리는 '박화성 문학페스티벌'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열린다.



로(정명혜·남부대)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우리나라 최초 여류 장편 소설가인 박화성은 1903년 4월16일 목포시 죽동 9번지에서 2남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12세에 목포 정명여학교를 졸업한 후 1925년 조선문단에 단편 '추석전야'로 등단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도쿄에서 소영 박화성을 읽다'란 주제로 일본 도쿄 한국기독교청년회관에서 서울과 광주, 일본 학자들이 참석해 박화성 문학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한다.

학술대회에서는 '1950~1960년대 박화성 장편소설 연구'(안서현·서울대), '광주의 시대정신과 박화성 문학-1920년대를 중심으로

인사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4급 전보 ▲익산우체국장 이승수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한우향 ▲전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장재혁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고인수(전 무등일보 기획실 부장)·정현수씨 아들 성은군 김수현·황연수씨 딸 지애양=17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상무리추진센터웨딩홀 1층 아이비홀.
- ▲박정하·이영자씨 아들 준용(형진)군 이복동·홍인애씨 딸 아름양=17일(토) 오후 1시10분 영광 글로리관광호텔 웨딩홀 1층.
- ▲홍세영(전 한국전력)·강순동씨 아들 현창(교보생명)군 문영홍(농협 여수시지부장)·김선희씨 딸 향양=17일(토) 오후 2시 여수 하든비호텔웨딩홀.
- ▲이광욱·김정진씨 아들 이재경(축산물 품질평가원)군 송승중(광주U대회 조직위 경기시설부장)·김복순씨 딸 혜영(광주 남구문화회)양=18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S타워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최희동(전남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임현경씨 아들 석인군 윤태영·정혜경씨 딸 소희양=24일(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킨라이트 1층 오렐리아홀

- (당일 오전 11시 영주체육관 버스 출발, 피로연 19일(월) 오후5시30분~8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3층 루시이홀.
- ▲이민래(세브라)·양승희(호천초 교장)씨 아들 세영군 남상영·정미양씨 딸 연희양=25일(일) 오후 1시5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3층 알루체홀.
- 종친회**
- ▲경주배씨 광주종친회 월례회의=15일(목)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심심한 민어·전여 회관 010-8623-4949.
- 향우회**
- ▲재광 고흥군포두면 향우회(회장 오화택)=1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시 서구 영주실내체육관 내 양궁장문의 사무국장 김성훈 010-3666-8114.
- 동창회**
- ▲광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임

- 채욱) 한마음 큰잔치=18(일) 오전 9시 광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문의 062-511-1946.
- ▲송원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대축제=18일(일) 오전 8시30분 송원대학교 운동장 문의 062-384-7447.
- ▲학다리 중·고교 총동문회(회장 노진명) 한마음대축제=18일(일) 오전 9시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 중·고등학교 운동장.
- ▲광주 북성중학교 총동창회 제40회 한마음대축제=24일(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광주 북성중학교 잔디구장(우천시 체육관) 062-523-1300.
- ▲광주 동초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24일(토) 오전 11시 광주 동초등학교 운동장.
- ▲제38회 일고인 한마당=25일(일) 오전 9시 광주제일고등학교 운동장 062-527-1955.
- 알림**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

- 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 ▲'금영권실링' 채권·채무·채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채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무료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모집

-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 수강생=군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려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2072.
-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나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힘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 ▲광주시 북구 밤실피닉스 축구클럽 동호회원=30세이상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강력 환영 010-2684-4490.

| | | | |
|---|---|--|--|
| <p>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p> | | | |
| <p>201호 故련봉수 남 (남/85세)</p> <p>子/子婦: 권국백/송혜순, 용규/장남희, 용성/정의정 女/婿: 권대순/고흥선, 용순/김종호 未亡人: 김순금 *발 인: 10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p> | <p>301호 故향동기 남 (남/83세)</p> <p>子/子婦: 황복근/김은경 女/婿: 황선화/이종국, 선자, 선미/장대성, 선애/사상준 未亡人: 김희영 *발 인: 10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p> | | |
| <p>401호 故강은하 남 (여/78세)</p> <p>子/子婦: 김두수/조금희, 화수/조순희, 夫君: 김영춘 女/婿: 김미애, 미숙/박명보, 미경, 미연/정종필 *발 인: 10월 15일 *장 지: 내남동 선영</p> | <p>102호 故김석진 남(남/85세)</p> <p>子/子婦: 김창호/기연순, 창연/사영란 女/婿: 김창희/서석관 未亡人: 민안순 *발 인: 10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p> | | |
| <p>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p> | | | |
| <p>문의 (062)227-4000</p> | | | |